

사우디, 제2의 경제도시 건설계획

-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인 King Abdullah Bin Abdul Aziz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Hail 지역에 제2의 경제도시를 건설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.
- 이 번에 발표된 두 번째 경제도시는 Hail지역 주지사의 이름을 따서 “Prince Abdul Aziz Bin Musaid Economic City”로 명명되었으며, 경제도시 건설에 약 300억 리얄(미화 80억불 수준)이 투자될 계획임.
- 한편, 사우디 정부는 지난 해 12월에 “King Abdullah Economic City” 명명된 첫 번째 경제도시를 사우디 북부지역 홍해에 인접한 Jeddah지역에 건설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, 이 첫 번째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약 1,000억 리얄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.
- 제2의 경제도시는 Jeddha 북쪽의 Hail 지역에 있는 Rabegh 산업도시 부근에 약 55백만 스퀘어미터에 달하는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, 아랍에미레이트의 유수의 건설회사인 Emaar가 주사업자로 선정되었음.

- 이 제2의 경제도시에는 공항, 철도, 항구 등 기반시설과 농공 산업단지는 물론 주거, 상업, 교육, 비즈니스 센터 등 12개 분야로 구획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, 이 도시 개발에 따라 약 3만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.

-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대규모 경제도시 건설 계획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막대한 재정흑자(2005년도 중에만 약 미화 570억달러 흑자 시현)로 발생한 여유 예산을 **Jeddha, Hail 등 비교적 미개발지역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사업에 투입함**으로써 사우디 전체의 **균형적인 성장도모**는 물론 사회적으로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**높은 실업률**(남자의 경우 약 20%,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약 10%만이 직업보유) **문제를 해소**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.

(자료제공: 두바이 사무소)

문의: 전문연구원 차경진 (☎3779-6686)
E-mail : chakj@koreaexim.go.kr